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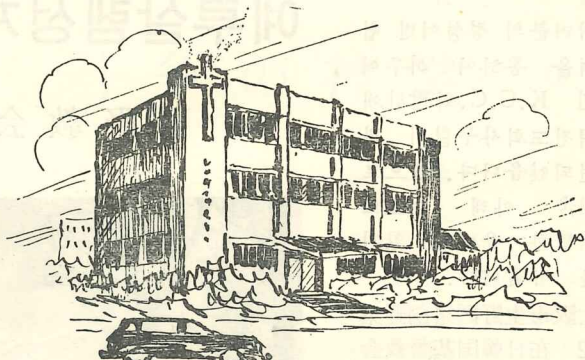
## 기독교회관(KCC)

# 建設推進

—위원회에서 구체안 전반 토의—

—KCC 중간사로 유석준장으로 선정—

1971년 4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KCC회관에서 신구 KCC위원과 KCC건설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KCC건설과 KCC활동의 구체안을 토의 결정하였다. 캐나다장로교회 선교부의 부총무 E. ROBERTS 목사를 내빈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캐나다교회의 간곡한 뜻을 전달하면서 뜻밖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KCC건설을 위하여 1만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1만불을 위원장 김창업장로에게 전달하였다. 회의에 들어가 회계 백인도목사가 지금까지의 KCC건설회계 총수입 73,992,148원 총지출 73,652,494원 잔액 339,654원이라는 회계보고를 하였다. 5월 30일에 3,500만원 지불에 관하여 장시간 토의하다가 총회내교회 모금에 적극 주력하는 동시에 유지도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명칭을 총칭으로는 KCC 코리아 기독교센터라고 활동기관명칭으로 大阪国際福祉センター外 몇 가지를 총회임직원회에 제안하기로 하다. 이 사회조직으로는 김창업 유석준 전영복 김경추 김덕수 이성기 이소용 전규장 김광수 김환필 오윤태 이인하 김덕성 홍영기 여전도회장 청년회대표 일반유지중 2명 합 2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福祉센터法人理事로서는 김창업 유석준 김경추 김덕수 이성기 이소용 김덕성 일반유지중 2명과 일본인으로 金田弘義 牧師 中山マサ 松井昌次 護士 西村関一 牧師 織田槽次 牧師 캐나다인으로 MC INTOSH 목사 합 15명으로



KOREAN CHRISTIAN CENTER  
(KIKUNO COMMUNITY CENTER)

구성하도록 총회임직원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운영예산으로는 일년간 예산 386만원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총회의 역사적인 대사업으로 KCC활동의 전망과 재일 동포 61만에 대한 책임담당의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장시간 토의하였다 한다.

4월 21일 KCC회관 회의실에서 총회임직원회가 개최되어 총회내 교회의 인사문제와 각국활동문제 교회경영 선교방침 등 토의하였다는데 KCC건설에 관하여 KCC위원회의 제안을 따라 명칭을 총칭 KCC(코리아 기독교교회관) 법인명칭으로는 大阪国際福祉센터로 결정 하였다. 운영

이사를 18명으로하고 법인사이로 1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예산으로는 일년간 386만원의 예산안을 통과하고 전체책임은 지는 중간사로 유석준장로를 선정하였다 한다. KCC건설비 잔액 3,500만원 지불대책으로 일본국내의 모금활동을 적극추진하는 동시에 모국교회의 열렬한 성원에 응하여 각교파별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여 제일차 활동 위원으로 오윤태 김덕성 정인수 홍영기 배기환(모국에 체류중) 목사들을 선정하여 5월초부터 모국방문하여 각교파의 총무국의 계획을 따라 모금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다.

## 関西地方 祈禱修養會 都諸聯會 開催

지난 5월 3일 오전 11시~4일 오후 1시까지 奈良あやめ池 桃山荘<모모야마소>에서 46명모여 아슈람(기도수양회)를 가졌다. >주제「성령의 충만」—오순절— >성경공부 ①「성령의 세례」 대비스목사<

西南地方> ②「성령의 역사」 황재정목사<武庫川教会> ③「성령의 열매」 전영복목사<10개년총간사> >개회예배 윤종은목사<堺教会> >폐회예배 이종현목사<川西教会> >마음문을 여는 시간 은혜나누는

시간—이창우목사<布施教会> 전영복목사·윤종은목사.

>도시제직회 장연「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교회형성」 윤종은목사 「KCC활동을 중심으로 강담회」 사회 이창우목사 >경건회 홍동근목사 >축호전도 최충식목사 >교회별 참석자 京都14、大阪6、平野7、西成3、北部2、川西3、堺2、神戸2、布施1、武庫川1、其他5

이번의 기도수양회와 도제직회는 한국기독교교회관(KCC)의 활동을 온 교회가 전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감탄하며 주가 세워주신 KCC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지역사회와 직결하는 역할이 되는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마당에 모여 사도들에게 내리시는 성령을 지금받고 오늘도 일하신 주님께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KCC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영광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앞으로 KCC 활동이야말로 우리를 좌우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KCC를 살리는것이 우리의 산증거가 되는것이다. 와서 보라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가를. / 오늘도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나가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로.

## 1971년도

### 총회시취 시행

1971년 4월 20일 총회시취국회를 개최하여 시취를 시행하였는데 합격자는 목사시취합격자 이태우장도사 강도사시취합격자 小杉越次 장로시취합격자 折尾교회 오우상 문봉석 神戸교회 장상재 下関교회 김도식 각직사들이 었다. 목사강도사로 합격된자는 공개설교시취를 받게 되고 목사는 총회시 장로는 각각 해교회에서 안수례식을 거행하게 되고 준비된 시기에 장립을 받게 되어 앞으로 재일 대한기독교교회를 지성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다.

## 墓전기도회를 통하여

관서지방 제1 제2 납골당 묘전에서

4월 29일 5월 1일 두차례 걸쳐 경도에 세워진 관서지방 제1 납골당묘전기도회와 5월 11일 武庫川넷가에 있는 仁川靈園에 건립된 관서지방 제1 납골당묘전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민족의 깊은 윤리성의 하나인 조상존중의 정신이 특히 고국을 멀리 떠난 재일 동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어 이국에서 객사한 영을위한 종교예식에는 신불신을 막는하여 성의를 모두아 모이게 되는 것이다. 경도의 제1 납골당에는 약 600명(2일간) 제2납골당에는 100명 모여 특히 29일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장막속에서 500명 가까운 유족들이 비를 맞아 가면서 묘전에배를 드렸다. 묘전기도회는 연중행사의 하나로써 매년 4월에 지켜온것인데 역지로 모인 모임도 아니고 극히 성의있게 모이게 되는 모임이

다. 교회가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묘전기도회를 모이는 것은 아니나 모인자에게 인생문제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모임으로서의 다시 없는 모임인 것이다. 원래 전도나 선교나 하는것은 인생으로서 입신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극히 자수적인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묘전기도회 자리는 전도집회의 자리도 아니고 전도강연회의 자리도 아니고 순수한 고인의 추도예배의 자리지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자기자신의 문제로 인생의 행불행 생사의 문제와 대결하는데 가장 유익한 모임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더구나 이역생활에 한국인으로서의 의지할데 없는 민족생활로서 납골당의 건설의 의의와 재일 동포사회에 끼치는 공헌은 뜻깊은 것으로 볼수있다.

- 6월 여전도회 월례회를 위하여 -

## 영혼의 양식

(고린후 4:8~18)

(에레미야 17:17)

## 창조의 생활

6월의 태양아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명한 햇빛과 함께 검은구름 사나운 비바람이 다같이 여기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이 또한 항상 따스한 햇빛뿐일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재이신 하늘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인생의 슬픈 그늘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기쁨을 창조해가는 생활로 주위를 밝혀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성술하여 가는 그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찢박과 고된힘의 소모속에서 새롭게 솟아나오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결사관은 밝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바울은 밝아지기만하는 슬픈현실속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지평선을 넘어서 오는 영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평화와 생명빛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란한 미래의 지평선에서 현재를 보며 용감히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언자 에레미야도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단련하며 불신의 부패한 가치를 잘라버리고 다시 든든하게 그리스도안에 뿌리를 박기 위하여 때로는 폭풍우가 필요합니다. 재난의 때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개인생활이 그렇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젊음 이들과 노인들사이를

비롯하여 가지가지의 다른 처지와 성정의 사람들이 서로 뜻이 맞지않고 의견이 충돌되어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저 낙심하고 넘어질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를 다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어 감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막힌 담을 털어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신도의 자명이 아닐까요..... 비록 끝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과 그리스도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심정을 힘입어 인내와 노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험하고 고달픈현실속에서 그 고통에 맞서서 고통의 현재를 새로운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갔습니다. 인

생의 가지가지의 어려운 길에서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살아 가는 생활이야말로 창조적인 생활모습이요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생활이라 하겠읍니다.

만물이 힘차게 성장하는 이 계절에 조물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더 깊이 깨달으며 응답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는 비입니다.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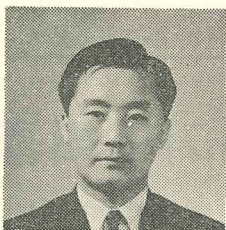
지으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아버지 저희의 눈들여 주님의 세계를 보게하소서 이 창조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찬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 멘》

☆ ☆

알림: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K.C.C.회관안에 여전도회사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래 주소로 긴밀한 유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544 大阪市生野区猪飼野東 3-34-2 在日韓国基督教教会館内 女伝道会連合會

총무 이영숙



## 武庫川교회에 황재정목사 위임

1971년 4월 25일 武庫川교회에 새로 부임한 황재정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武庫川교회는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교회로서 옛시대에 일종의 극열한 박해에서 神戸、大阪 근방의 신학교학생들이 선교사명에 불탄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한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었다. 그 역사는 성경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요 시대적조류에 떠밀려 일본에 건너오게된 한국민족의 유리생활 가운데서 신앙을 찾은 민족종교사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교회로서 현재 장로 2명(시무1명)과 담녀 12명 집사와 60여명의 신도가 교회를 충실히 받들고 있다. 전임자 최경식목사(현 西新井교회목사)의 뒤를 이어 뉴저랜드신학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진교역자인 황재정목사를 맞이하여 교회전체가 새 힘을 얻어

새일 동포구명에 과거 역사의 모습의 뒤를이은 교회답게 전진하고 있다. 드디어 4월 25일 오후 3시부터 전당회장 이종현목사의 사회와 지방회장...정인수목사의 서약자식하 부회장 김원치목사의 설교 교육부장 홍동근목사의 기도 전도부장 전영복목사의 권면 시취부장 김경찬목사의 축사 등 순서를 갖춘 위임식을 엄숙리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관서지방각교회에서 교역자 교인 다수 참석하여 일본교회에서도 몇몇 신도가 참석하다가 일본목사의 축사도 있어 예배당에 빈자리 없이 모여 감동깊게 황재정목사 武庫川교회에 위임을 축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川西교회가 신도 총출동

으로 축호 전도

5월 15, 16일 兩일에 결

쳐서 관서지방회와 가정문서 선교회 川西교회 삼자 합동으로 池田、川西、兩市 우리 동포가정을 집집마다 방문전도하는 축호전도를 전개하였다. 최종식 전영복 이창우 황재정 여려목사가 출역하여 이종현목사 진두지휘하 교인 8명이 출동하여 낮에는 가가호호로 방문하였는데 가지가지의 문제를 물어지고사는 재일 동포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전도와함께 동포애를 직접으로 나누는것같애 재일 동포선교의 특수성에 가장 효과적이며 뜻있는 전도방법이라 할수 있다. 2일간에 152집을 찾아 방문하였다. 저녁에는 예배당

에서 전도집회를 2일간 개최 하였는데 전영복목사의 설교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저녁전도집회에 축호전도로 새로 나온 분이 3가정이었었다.

5월 28일~30일은 오순절을 기념하여 生野지역에 7만동포에게 축호전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방회전도부장 전영복목사와 가정문서 선교회 최종식목사 大阪교회김덕성목사 布施교회이창우목사가 주동이되어 大阪市内각교회에서 전도대원을 정하여 大々적으로 공동선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 예루살렘성지순례기

平野教会 정인수 목사



사진은 예루살렘성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 평생에 소원하고 있던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서 3월 21일에 동경羽田空港에서 출발하여 10여개국을 거쳐서 오는 길에는 북극아라스가를 경유하여 4월 10일 羽田空港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돌아온바 성지순례기를 쓰라는 부탁을 받고 저의마음 가운데 감명 깊은 몇가지를 쓰고자 합니다. 요번에 은혜스러운 것을 일본기독교史学会주최로 가게 되므로 이스라엘나라史学会의 후원을 받게 되므로 기독교역사에 관한 사적은 자세히 다 보게 되었다.

①첫째예루살렘을 중심한 우리 주님의 전도여행에 관하여서는 이스라엘나라는 산은 전부가 돌이고 들은 모두가 사막인데 사람이어디든지 멀리 있어도 잘보이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열두사도를 중심하여 수백명의 제자들을 다리고 전도하러 다니실때에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라도 잘 볼수가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적기사를 행하시니 더욱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될때에 당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할만큼 되겠다는 생각이 나게된 감명 깊은 것은 갓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세워가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자리는 넓은 바위였고 바로 기도론강 건너서 맞은편 가까운곳에 있는 최후로 심문받으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전과 심문을 받으시고 지하실 주께서 홀로 밤을 세우시던 그 캄캄하고 무시무시한 방과 그 이튿날 결박을 당하시던(마태26:56, 28:20)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선고를 받으신 그 자리와 거기서 조금 더 가서 가시면류판과 십자가를 지신 곳자리와 거기서 한 20分정도 가서는 골고다의 동천이며 무덤은 바로 그 동천밑에 었다.

(계속)



## 聖書

## 孤独にされたイエス

マタイ 26:47~56 金元治 牧師

1. 人は表裏のある生活をする。ユダは主イエスに愛されたいながらも、主を裏切る行為をしていた。それでも主をいかにも愛しているかのように最も親しい子弟間の礼儀である口づけをもって挨拶をした。心では主を裏切る合図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表では愛していますという素振りである。主が殺されるこの行為をよくも平然と出来るものだと思うと身ぶるいがする。三年前に徹夜の祈りによって選び(ルカ 6:12~13)、その後寝食を共にしてその信仰を育てた直弟子(ヨハネ1:39)が三年後の今日では主を殺し屋に渡すとは(ヨハネ6:70)全く人間の罪の深さを感じざるをえない(ロマ7:24)。主イエスはユダの行為を知りながらも彼を恨むことも憎むことも復讐する気もなく、その魂の救われぬのが気の毒でならなかった(マルコ14:21)。

2. 主を愛してやまなかったペテロは主がローマの兵隊に捕えられるのを見て義憤を感じて敵の耳を切りおとした(ルカ22:50)。このペテロでさえも現実に主が官憲にとらえられるのを見てからは逃亡してしまった。生命を捧げますと決意をした最高弟子でさえこうである(マルコ14:71)。私たちが主の御受難を偲びつつ自分が主を裏切り、主を見捨てたものである自覚を深めていきたいものである(マルコ14:19)。罪は他人に転化し、誉れは自分にくると考えるその考えこそ誤っていることを深く反省せねばならない(第2コリ7:1)。苦しみを受

けるのは私たちの信仰のためであるこのために主の苦しみにあづかる(コロサイ 1:24)。

3. 私たちの信仰の模範とすべき弟子たちがこのようなさまであるのはどこに原因があるのか。それはイエスが捕えるのを見て恐しくなって逃げたのではなく、ゲツセマネで祈りの時に主イエスは彼らに誘惑に陥らないように、目を覚まして祈っていなさいと言

われた。その時に主の苦しみにあづかって共に祈っていたならば、サタンのいざないにかかって、主を見捨てるようなことはしなかったはずである(マルコ14:32~41)。主は受けるべき十字架を十二軍団の天使によってしりぞけることもできたけれども、それをしてないで神より与えられた十字架を目ざして進まれた(ヨハネ18:11)。

(西成教会)

## 斗争の神学 - 6 -

岐阜教会 牧師

金 承 俊

初期のものから、最高段階の人間や、宗教が現実に、混在していると見るのである。

さて、この様な考えが、いか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ある。ドイツの神学者ディートリッヒ・ボンヘッファーは、今の時代を、「成熟せる世界」と呼んで、超越主義の神観を持つ宗教は、無用の長物と化したと語り、今や、宗教の時代は終わったと語ったのである。そして、基督者こそ、この世に於ては「真の虚無主義者」(ヴェルクリッヒ・ニヒリステン)であると語り「無宗教的基督教」(レリギオン・スローゼス・クリステンテーム)を提示し聖書の「この世的解釈」(ヴェルトウリッヘ・インテルプレヌチオン)という非宗教的解釈を提示したのである。彼に於て、一般史が、基督教史と接近している

のを見るのである。更に、「神の死の神学」に於て、一般史と救済史とが目ざす目標がより接近し、前者の中で、特に、マルキシズムは、社会を目ざし、後者は個人の決断、自己否定を契機とする個人を目ざしていたが、最近では、「個人」の限界性を乗り越える、全体を指標とする或る社会を目ざしている如くである。

我々は、今日、今まで培かれて来た一切のものが、試練の前に置かれているのみでなく、否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追い込まれているのである。

このことは誰もが認めねばならない事実なのである。「神の死の神学」に於て、人間が本当の意味で生きる為には、神を殺し、キリスト教界を否定しなければならぬと言っている。そして、苦悩と

か、死とか人間を暗くして来たものを、人間の力で克服することが出来るという楽観主義、健康主義を打ち出して、神がキリストに於て、自らを殺した如く、我々人間も、自己犠牲という行為を通して、隣人の真の友になるようにと教えているのである。彼らは、この世の一つ一つの事件を避けないで、受け止めて立とうとしている。この世を生き抜こうとしている。この世以外の世を考えず、世俗の中心に立とうとしている。隣人や、イエスを探さず、自ら、隣人や、イエスになろうとしている。そして、歴史を神人合一の過程として見、それが全体的規模に於て成って行くものとして見ている。

これらの考えに対して、又彼らに対して、我々が、何と言いうのか?何を反駁し、どう対処し得るのか?

事実、我々が彼らに反対するとか、しないとか云う前に、我々自身の生活そのものが、既に、彼らの言う様な神殺しの生活をしているのではなからうか?

しかし、我々はここで、この世に於ける罪や、悪の問題が解決されるとするならば、我々は、今まで、歴史や伝統を通して、戦い抜いて来た一切のものは無駄であって、結局、ある歴史上に於ける或る時代のデッチ上げに過ぎなかったのだという彼らの主張を認めざるを得ないことになって了うであろう。

これは丁度、戦時中、天皇を神と信じ、一切を犠牲に働いて来た若き青年が、終戦後、仏閣寺に火を放って焼いた、あの青年と変らない様に思われてくる。事実は事実なのだから、認めようとしないう頑迷さが災いになる訳である。

自己弁護的、又は自己保存的なものは結局は腐れて行くのかも知れない。

滅亡して行く中から救われる唯一の方法は、自らを厳しく見つめ、彼らの言うように、自己を殺して了うこと即ち、否定して了うその中からしか、何かが生まれて来ないのかも知れない。

東洋の深い宗教、例えば、仏教に於ける輪廻とか、涅槃とか、空等の思想や境地は、このような完全な自己消滅の反復による新しき生まれ変わりのことを言っ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

しかし、この様な最高段階に近い所にまで達した人々は、より完全な自由に近いに生きて行くかも知れないが、平凡な一般人にとっては、やはり弱く、罪深く、又状況の変化によって激しく変り易いのは事実であろう。前者の人間が、そこまで達するまでには、いかに長い自己との闘争をして来たか、その裏には、いかに物凄いもの、我々の想像を超えたものがあつたかということを思うのである。

それ故に、凡人に、直ちに、この境地が提示されることは、あまりにも安っぽ過ぎるのである。何事も段階というものがある、地上の可視的なもの、汚れたもの、罪だらけのもの、地上の目に見える建物、組織等を仲介として、それらを一切無に帰せしめて了うのではなく、それらを通して、弱い個人と団体が、強められ、磨かれて行って、最終的な、唯一のあの目標(全き自由で生きること)へと目ざして行くのである。

たとえ、あらゆる段階を通して、最終段階に達した人と云えども、いかに、状況によって変わり、又卑しい姿を呈するようになるかということも現実の事実として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つづく)

##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073991)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大阪(06)341-2162



## 中部地方修養会開催

### I 青年会

去る 4月24日、25日の二日に互って、中部連合青年会による春の修養会が、愛知県の愛知牧場に於て開かれた。

役員たちの献身的な努力によって、参加者は33名にも達した。修養会を開くに当って、役員たちの真剣な会合ももたれた。

会長 柳三島（岐阜）、総務 柳昌輝（名古屋）、企画 鄭基沢（名古屋）、出版 金永泰（名古屋）、会計 金正代（岐阜）、これらの役員たちが、何とか青年活動を活発にさせようと努めている。

目下、青年会活動は細々ながら続けてはいるものの、模索中であると云える。

各々の場に於て、各々の生活に生きる青年たちが、共通の場に立って、一つのことを創って行くことは、生易しいことではない。

先づ、交わり、そして、心を開いて行く語らい、そして次に、共通点、一致点を見出して、そこから、一つのことを実行して行くのであるが、未だ、初期の段階にあるといえよう。

今という時にあっては、一つ所に、若人が集ることだけでも、大きなことだと見なければならぬであろう。

とにかく、先づ、集ることに重点がおかれているともいえる。

自然の美しい環境の中で、若人たちのみが集って、自炊をしながら、共に、学び、遊び、語らうこと、これこそ、今日の時代にあって、我々にとっていかに大切であるかを痛切に感ぜしめられる。

この度の修養会は、内容的には、大したものゝを為すことも、残すことも出来なかったが、共に学び、共に語り合い、共に思う存分、ソフトボールをしたことが楽しい思い出である。

いつか、この若人の中から、将来成功する者が出て、中部の景色のいい所に、青年達の為の合宿所を作る者が出て来ないとも限らないという、ほのかな希望を抱いている。「在日 韓国基督者 青年よ、自然に目と心を向けよう。自分達の集いと憩いの場たる、青年の合宿所を作ろう。」このようなスローガンのもとに一致団結するならば、為し得ないことはないで

あろう。

このような青年たちの為に、隠れた祈りと最大限の惜しみない援助とが、目下、緊急のこと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良き物、良き人物が生まれてくるまでには、その裏には、必ず、驚くべき犠牲と献身が隠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忘れてはならない。

在日 韓国基督者 青年に夢を。

### II 地方会

去る 5月3日より5日まで、三ヶ根山簡易保険センターに於て、「祈りと生活」という主題のもとに、金元治牧師を迎えて、中部地方連合修養会がもたれた。

アシュラム方式による、敬虔な祈りの生活を回復するという意図をもったものであった。

戦いの生活をする時に、前進ばかりではなく、後退して、力を貯え、一切の生活から、一旦断絶してから、新しい力を受けんとする方法なのである。

多忙な生活に追われ、已を省る時のない私達に、もう一度新しい力を与えられたように思われた。

多忙な生活の中で、神を忘れ、同時に自分を忘れてい乍ら、なおかつ、神に従っていると安易に錯覚しやすい我々に、厳しい悔い改め、自己への悲しみ、嫌悪を知らしめられて、もう一度、姿勢を正す機会を与えられたのである。

実質のない、言葉のみになり下がって了っている、我々のいう祈りとか、神とかという言葉を、もう一度、実感をもって、考え、又学ぶ機会をもった。特に、主の祈りを通して、学び、教えられた。マタイ 6:9~13と、讃美歌にある主の祈りを学んだ。祈りとは、先づ、呼び掛けがあり、感謝、悔い改め、お願い、讃美、それから献身という順序があると。特に、「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赦す如く、我らの罪をも赦し給え」の所で、我らが兄弟を赦さないでいて、罪を赦し給えということは誤っていると指摘される時、これは、我々の日常生活に於ける根本的な批判と訂正を求めるものであった。この度の修養会を通して、バンドを締め直す思いであった。とかく甘く考え易い我々に、神の厳しい御言葉に接し得た感があった。信仰生

活とは、生易しいものではないこと、そこには、全生活と全生涯が、日毎に、時間毎に、か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感じせしめられた。

それ故に、こんな時代に、神を伝え、伝道することの困難さを思うたのである。あれ程までに、自己が苦しみ、悔い改め、涙を流し、自己嫌悪にとりつかれ、自己を紛々に碎かれて、神の前に、空手で、空の心で、一切を差し出す時に、神の御言が、心貫いて働くので、これが、神の業としかいえないことが分るにも拘らず、これを理解せず、時代や人間の手段の影響を受けて、人間が、神の代り

に安易に、救われる者を創り出そうとしている現実への否を痛感せしめられた。神によって全く碎かれ、傷つけられた人間、即ち選ばれた者にか、決して神の御言は正しく働かないのに、無理に繕おうとしている。信者とは実に、単純な心の者である。ただ主に信頼し主と共に生きる者である。人数や装いを気にせず、真実の、砕けた魂をもったクリスチャンを磨くことに手伝わせて貰うことに喜びと感謝をもとう。42名の参加者一人一人が世の光、地の塩としての証人として生きて行かれるものと信じている。

## マルクス主義の宗教批判

ゴルヴィツァーの＜マルクス主義の宗教批判とキリスト教信＞を読んで

品川教会 金 挂 晃 牧師

如何してマルクス主義の反宗教闘争に対決すべきであろうか。＜目には目を、歯には歯を＞という対決の仕方は信仰に基づく行為ではなく、むしろ反動的反抗であるといえよう。それゆえに、先づ、マルクス主義の反宗教闘争を許す神の御旨は何んであり、それが目差すものは何んである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著者は、マルクス主義の無神論に基づく宗教批判は合理主義に基づく近代精神であるという。宗教批判は啓蒙運動者、英国の理神論者によって始められ、コントを通して、マルクス主義が受け継いだものである。近代精神として登場した啓蒙運動は人間のすべての問題を神に委ねることなく、人間の理性によって解決しようとする合理主義である。この近代精神を受け継いだマルクス主義はただ宗教批判に止まらず、さらに進んで無神論に基づく反宗教闘争を押し進めたのである。

著者はマルクス主義の無神論は弁証法的唯物論の体系理論から生れたものではなく、経験と弁証法的唯物論体系化のための要請に基づく理論であるという。著者はこの無神論の内容として三つの点をあげる。

第一点は、マルクス主義の無神論に基づく宗教批判である。マルクス主義は、天国の永遠の生命と幸福を約束することによって、人間をして地上のすべての課題を無視させ、観念的天国に逃避させるすべての宗教に対して鋭く批

判する。宗教は＜大地を忘れさせた＞。そのために＜宗教は民衆のアヘンである＞。従って宗教の原因は人間の利己主義と欲求不満の所産である。利己主義というのは隣人と共に生活する共同体を無視して、神依存によって自分ひとりの救いと幸福のみを求めているがゆえに、利己主義であり、欲求不満というのはこの世で得られない幸福を天国で得ようとするがゆえに欲求不満である。マルクス主義の宗教批判はキリスト教に対して、その正当性をもつ。フランスの多くの牧師は、当時の労働者を搾取する支配階級と妥協して、奴隷社会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順従な労働者には、神の永遠な生命を約束し、社会革命のために立ちあがる者には永遠な刑罰をもって脅迫し、1848年2月のフランス革命の失敗を神の審判として非難した。

このような体験からマルクス主義はキリスト教も神の啓示に基づいて形成された信仰の共同体ではなく、自分の地位、富み、利益のために作り

出した宗教であり、その＜神学も又人間学＞であり、神と呼ばれるすべてのものは＜人間自身の自己投影＞にすぎないとした。マルクス主義は、このような歴史体験からこの大地の上に住み良い人間社会を創造してゆく道を防ぐ神を殺して、＜神は死んだ＞と宣言したのである。これはキリスト教会の利益と利用のために偶像化した神を破壊して、活ける神への道を備えたのである。著者は、神も、信仰も、愛も、奉仕も、すべてを観念的に受け止めるキリスト教に対して、＜マルクス主義はキリスト教のプラトン主義化を警戒せよ＞という点を強調する。

第二点は、マルクス主義の無神論に基づく反宗教闘争である。マルクス主義は宗教批判によって永遠の生命と喜びの望みを喪失した民衆に天国ではなく、地上にその目を向けさせ、この大地の上にユートピア社会を約束して、そのために積極的参加を呼びかける。それは徹底的に天国を否定して、この世界に対する責任を強調する反宗教闘争としてあらわれる。人間はこの世界以外のどこにも住める天国は存在せず、この大地以外に人間の住む所はない。そのためにこの大地に地上楽園を建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世界だけで充分である＞（Klaus）。＜大地に忠実であれ＞（Nitsche）。人間は神に依存することなく、人間のすべての問題を人間の力で解決して、未来の理想的社会を建設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完全な社会を創造する者は神ではなく人間自身である。

人間だけが自分自身の運命の主であり、この大地の主人公であり、＜人間が人間にとって最高の存在である＞（Marx）。マルクス主義はこの大地に未来の完全な社会を建設するために、人々の目を天国に向けさせる神を徹底的に否定する反宗教闘争を押し進めたのである。

（つづく）

大阪生野地区

特別伝道集会

5月30日(日)午後7時30分

大阪生野地域センター《KCC》

講師 金 浩 植 牧師